

# 무주산골영화제 '창' 섹션 9편 공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역대 최다 111편 출품작 중 최종 상영작 선정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 9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 9편을 선정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영화들을 엄선하여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이다. 그동안 <수련>(김이창/2013년 1회), <한여름의 판타지>(장건재/2015년 3회), <죄 많은 소녀>(김의석/2018년 6회), <남매의 여름밤>(윤다비/2020년 8회),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김세인/2022년 10회) 등의 영화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11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총 9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6편의 작품이 장편 데뷔작으로, 새로운 감독의 두드러진 활약이 돋보이는 결과기도 하다.

먼저 작년 한 해 최고의 평가를 받은 화제작과 수작, 올해 공개될 신작이 망라되어 있는 극영화 부문에는 이정훈 감독의 <괴인>, 조현철 감독의 <너와 나>, 박세영 감독의 <다섯 번째 흥취>, 신동민 감독의 <당신으로부터>, 조희영 감독의 <이어지는 땅>, 박종권 감독의 <중>,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2편의 다큐멘터리가 함께 선정되었는데, 이동우 감독의 <사갈>과 김보람 감독의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 그 주인공이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선정된 9편의 '창' 섹션 상영작에 대해 "늘어난 출품작 수, 안정적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 9편을 선정했다.

인 완성도, 뛰어난 신작의 부재 등 몇 가지 이유로 올해의 영화 선정 작업이 까다로웠지만, 작년 무주산골영화제 이후 공개된 수작들이 다수 포함된 올해의 선정작을 통해 동시대 한국영화의 또 다른 풍경을 담아내려했다."면서 "뛰어난 상상력, 다양한 소재와 주제, 독창적인 형식, 신선한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9편의 선정작들은 상업영화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동시대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창' 섹션의 시상 내역은 뉴비전상, 감독상, 아빈 크리에이티브상, 영화평론가상, 무주관광객상 총5개 부문으로, 상금은 총 2천 1

백만원이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김이석(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신수원 감독(<명왕성> <마돈나> <젊은이의 양지> <오마주> 연출), 심재명 대표(명필름 대표, <사)여성영화인모임 이사,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은 송경원, 차한비, 한창욱 평론가가 맡을 예정이다.

뛰어난 상상력과 다양한 형식, 개성 있는 스타일, 높은 완성도로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백제왕궁박물관, 실감형 XR 체험 올해 말까지 운영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 백제왕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K-콘텐츠



역사문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감형 콘텐츠(XR) 체험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감형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의 핵심 요소가 융합된 확장현실(XR) 기법으로 제작되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를 보다 입체감 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양손에 든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왕궁박물관 2층 가상체험관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체험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된다. 관련 문서는 백제왕궁가상체험관(063-859-4792, 4798)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공연' 풍성

한벽문화관, 샌드아트·뮤지컬·인형극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풍성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연으로 만나는 풍화세상 '한벽하여로'가 오는 5월 4일 첫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래동화 속 어벤저스'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샌드아트가 접목한 공연이다.

이어 5월 10일 진행되는 가족뮤지컬 '마녀는 내 친구'는 소리문화창작소 신과 함께한다. 마녀는 내 친구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익숙한 캐릭터들이 마녀와 함께 살아가며 가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 동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에 대해 공감케 하는 가족뮤지컬이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공연은 극단까지 등과 함께하는 '청소부가 된 토끼와 꿈'이다. 청소부가 된 토끼와 꿈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인형극이다. 산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재단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샌드아트, 뮤지컬, 인형극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자세한 정보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7040, 7030)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아트상품 개발 참여 예술인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아트상품 개발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각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역량있는 작가들이 작품의 원작을 모티브로 독창적인 아트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9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조명, 가방, 문구류 등을 개발했으며, 온라인 채널이나 개인전 등의 현장판매를 통해 일부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창작이 주요 활동인 예술인들이 아트상품 개발이라는 다소 낯선 영역과 새로운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활동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예술작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미술품 구매나 소유에 대한 대체

품으로 아트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수요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다채로운 개발과 주제, 이미지를 원작으로 하는 작가만의 독특한 아트상품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예술가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제작자원을 통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12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다양한 이벤트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념해 개막일인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이하 라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 배치를 소지한 외국인 초청 게스트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내 5개 공방에서 무료로 한지브로치 만들기, 원석 매듭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라운지에서 무료 체험권을 발급한다. 또한 국제영화제 티켓을 가지고 라운지 방문 후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면 휴대폰 그림책, 열쇠고리 등 라운지 MD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영화제를 즐기러 온 여행자들을 위해

라운지에서는 영화제 기간 동안 당일 무료 짐보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우산 및 휴대용 보조배터리무상 대여 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영화제 기간 동안 라운지의 모든 판매상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는 쇼핑, 여행, 라운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반 여행정보 뿐만 아니라 짐 보관 서비스, 무인카페 및 포토존 이용, 기념품 구입 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위한 미팅 룸 대여, 복사 및 팩스 등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